친일 청산·일본 사죄 외치며 분신 영암 최현열 선생을 기억하시나요

"아베 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쇠보다 단단한 가슴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에 불을 붙이고 이순신장군 같은 결연한 의지 3·1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7000만 동포에게 고함' 중에서

2015년 광복 70주년 앞두고 '7000만 동포에게 고함' 남기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

독립운동가 부친 뜻 이어 위안부 피해 해결 등 앞장 망월동 묘역서 4주기 추모제

"아베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들의 정신부터 뜯어 고치고, 3·1정신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무엇인들 못해 내겠습니까?"

지난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는 4년 전 광복 70주년을 3일 앞두고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분신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현열 선생의 4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를 주관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아베정권 규탄운동에 맞춰 올해 추모제는 최 선생의 생전 활동을 현시점에서 재해석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최 선생이 80세의 나이로 2015년 8월12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할 당시 현장에 남겼던 '7000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호소문과 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 선생은 호소문을 통해 "역사는 무거운 짐입니다. 말로만 애국애국 천번 만번 떠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며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일본놈들의 속셈은 알 수 없고 하는 행동은 괘씸하지만 과거사는 과거사로 돌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빨리 뉘우쳐 가깝고도 먼 나라 만들지 말고 다정한 이웃으로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베 정권은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었다.

또 "친일 부역자들은 떳떳하게 살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한일 관계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아베 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쇠보다 단단한 가슴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에 불을 붙이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결연한 의지, 3·1정신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선생은 이 글을 남기고 9일 만인 같은 달 21일 숨을 거뒀고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최 선생이 분신까지 하며 일본을 규탄하면서 뒤늦게 그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조명을 받았다. 최 선생의 부친 최병수 열사는 1931년 영암지역에서 일제에 저항해 농민운동을 하다 1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지난해 최병수 열사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며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다.

평생을 농민으로 살아온 최 선생은 부친의 뜻을 이어 지난 2013년부터 시민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강제징용 피해할머니들을 후원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을 찾아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자 최 선생은 강하게 분노하며 분신으로써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반일 운동과 항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선생님을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이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생님이 본인의 몸에 붙인 불꽃이 이제 들불이 되고 횃불이 돼 아베 정권에 항거하는 우리 국민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지난 17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故) 최현열 선생 4주기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복운전 줄어드는데…광주·전남은 늘어

정인화 의원 자료 공개

최근 2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대안정치연대, 광양·곡성·구례)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서 8835건의 보복 운전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017년 95건이 발생했으나 작년에는 121건으로 26건 늘었으며, 전남은 2017년 120건에서 129건으로 9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 급제동이 가장 많았고, 서행 등 진로 방해, 협박, 폭행이 뒤를 이었다. 보복 운전 범죄 가운데 4325건(49%)이 기소됐으나 5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산강서 사망한지 수일 지난 50대 남성 시신 발견

영산강에서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1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인근의 영산강에서 한 낚시객이 A(51·영암)씨가 숨진 채 물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으로, 발견 당시 옷을 제외하고 아무런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이 상류 부근에서 물길을 따라 흘러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공단지 보조금 76억 부당지원 공무원 등 15명 송치

경찰이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공무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흥경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리고,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1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동강면 장덕리 29만7000㎡ 부지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나섰다.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초 민간투자가 안 돼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고흥군은 단지 조성에 54억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했다. 고흥군은 부당하게 지원한 보조금 환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의 땅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야생 대마 담배에 섞어 피운 외국노동자 구속영장 신청

광주광산경찰은 18일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47)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자신의 숙소에서 말린 대마를 총 5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농공단지 울타리에 자생중인 야생 대마 두 줄기를 채취해 말린 뒤 담배와 섞어 흡입했다. 경찰은 대마를 피운다는 첩보를 받고 출동해 숙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안전난간 밖 선글라스 주우려다 지리산 등산 60대 추락 사망

지리산에서 등산하던 60대가 구룡계곡 등산로의 안전 난간 밖에 떨어져 있던 선글라스를 주우려다 계곡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8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A(65)씨가 전북 남원시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60m 아래 구룡폭포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등산하던 중 다른 사람의 선글라스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주려 난간 밖으로 나갔다가 가파른 경사(80~90도)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막바지 휴가철 전남서 교통사고 잇따라

여수 취적터널서 연속 추돌 함평서도 사고…부상 속출

휴가철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7일 낮 12시 10분께 여수시 율촌면 취적터널 내에서 A(43)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7대가 연속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차량 정체 구간에서 A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바람에 연속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55분께 함평군 엄다면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광주 방면)에서는 모닝 승용차가 앞서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

앞서 오전 8시40분께에는 함평군 손불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함평천지휴게소 인근에서 B(49)씨가 몰던 활어 운반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자 뒤따라오던 C(53)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트럭과 부딪쳤다. B씨 등 양 차량의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트럭 타이어가 펑크나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시 율촌면 취적 터널에서 지난 17일 낮 승용차 5~6대가 잇따라 추돌해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2600만원 도둑 맞은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니…범인은 남편

쌍나팔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7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2600만 원을 도둑 맞은 70대 노파가 절도신고를 했다가 범인이 남편으로 드러나자 아연실색.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주택에서 70대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장롱 속에 숨겨 논 현금 2600만 원과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사건 다음 날 형사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남편이 할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관계자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할아버지를 처벌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할머니도 용서를 할 지는 모르겠다"고 한마디.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8990	1	목포시 원산주택로30, 101동 12층 1205호 [산정동,소암아파트] 59.64㎡	아파트	87,000,000 60,900,000	2017타경8259[중복]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8300	1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7376㎡	임야	1,712,816,000 1,712,816,000	일괄매각,현황묵전.2019타경3593, 2019타경3609,2019타경3616[중복]
		동소 62-15 2189㎡	임야		
		동소 62-16 10270㎡	임야		
2018타경9495	1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408 2373㎡	전	75,490,000 75,49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에매각에포함되는수목있음
		동소 408-4 3799㎡[물건번호1:목록1,2매각대상아닌비닐하우스및목록2이동식화장실있음]	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9495	2	동소 산55-8 670㎡[현황전및대.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있음]	임야	8,710,000 8,710,000	매각에포함되는수목있음
	3	동소 408-5 258㎡[매각에포함되는수목및관정있음]	대	10,612,000 10,612,000	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있음
2018타경54235 2019타경3210 [병합]	1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58-15 395㎡	대	423,717,200 423,717,200	일괄매각,목록3,6,7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4맹지로서,목록1토지통해출입.목록6수목포함매각[김금숙소유]
		동소 58-15 196.8㎡	단독주택		
		동소 58-13 446㎡[지적도상맹지]	전		
		동소 58-14 572㎡	대		
		동소 58-14 129.6㎡ 부속건물 변소2.4㎡ 창고90㎡	단독주택		
		동소 58-36 747㎡	전		
		동소 58-12 188㎡	전		
2019타경50001	1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708-6 510㎡[4분의1 각김미선,김용균지분전부.현황묘지,연고미상분묘수기및식재자미상수목수그루소재,정확한분묘의수파악위하여경계측량요]	전	9,180,000 9,1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9. 2.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9. 9.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문형준